

캐롯 이어 삼-카 동맹... '디지털행' 티켓 끊는 보험사

〈삼성화재-카카오페이〉

캐롯손해보험 신상품 잇따라 출시
삼성-카카오페이 디지털혁신 가속화
현대해상 ICT기업과 공동프로젝트



지난해 5월 기자간담회에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발표하고 있는 모습. /카카오페이

보험업계에 디지털 바람이 불고 있다. 보험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인 데다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업황 악화를 겪자 디지털 혁신에 나선 것이다.

이미 1호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이 신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디지털 보험시장 공략에 나섰다. 카카오페이와 삼성화재가 손잡고 2호 디지털 손보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기구 설립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보험업계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삼성화재가 이르면 3월 초 디지털 손보사 설립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예비인가 신청을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비인가를 통과한 업체는 금융위 통지 후 6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고, 본인가 심사는 신청 후 1개월 내에 이뤄진다.

본인가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2호 디지털 손보사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캐롯손해보험은 '캐롯 단기 질병안심보험'을 선보였다. /캐롯손해보험

인가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화재는 카카오페이와의 협업을 위해 지난해 10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합작사업 계획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해왔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카카오페이와 손을 잡은 것은 보험업계의 성장성, 수익성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신시장 개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화재가 직접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 모바일 기업 카카오의 금융플랫폼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 시간 등의 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화손해보험은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과 합작해 국내 첫 디지털 손보사인 캐롯손보를 출범했다. 캐롯손보는 지난달 '스마트ON 펠트산책보험', '스마트ON 해외여행보험' 등 '스마트온(스위칭형 보험)' 2종을 선보이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등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는 한시적 상품인 '캐롯 단기 질병안심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향후 캐롯손보는 트랜스포밍 형태의 스마트ON 후속상품과 퍼마일 개념의 자동차 보험, 국내 최초의 반송보험, AI(인공지능)·블록체인 기술기반 보험 등 새로운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해상도 네이버, 카카오, 코드42

등 ICT 관련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디지털 신기술의 보험업 접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디지털 바람은 금융당국의 민관합동기구 발족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추진단, 금융감독원 핀테크 혁신실, 손해보험협회 등은 인슈어테크(보험+기술)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

인슈어테크 추진단은 최근 통과된 데이터 3법 관련, 보험업계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감독규정이나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슈어테크 추진단은 ▲헬스케어 ▲IT 및 데이터 ▲법규개선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산업에서 디지털은 필수가 됐다"며 "디지털 전환을 위한 보험사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영업점 방역 점검

NH농협은행 5일 이대훈 행장이 평택시지부를 방문해 농협고객들에게 마스크와 세정제를 전달하는 등 영업점 방역상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이대훈 행장(오른쪽)이 5일 경기도 평택시지부를 방문했다. /농협은행

이후에는 평택시 소재 딸기농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행장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소비감소와 가격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농가지원을 위해 전행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비상경영체계를 가동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개인 및 기업 고객에 금리우대, 긴급 자금지원을 실

시하는 등 고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상미 기자

삼성카드 코로나 피해 가맹점·고객 대상 특별지원

삼성카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가맹점과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및 격리, 확진자 방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피해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주와 고객을 대상으로 가맹점 대금지급 주기 단축,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을 지원한다. 먼저, 피해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점 대금지급 주기를 1일(기존 D+2일 가맹점주 대상) 단축한다.

또한 피해사실이 확인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결제대금 청구유예,

모든 업종 2~6개월 무이자할부, 카드대출 상품 이용 시 최대 30% 대출금리 할인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피해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카드 전체 회원에게 병원과 약국에서 2~3개월, 종합병원 2~5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생활밀착업종인 할인점, 안경, 학원은 2~3개월, 의류는 2~4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또한, 중소·영세 가맹점 대상 빅데이터 기반 상생 마케팅 플랫폼인 링크(LINK) 비즈파트너를 통해 가맹점주의 마케팅을 지원한다.

/홍민영 기자 hong93@

하나은행

새해맞이 행운의 포춘쿠키

하나은행은 2020년 새해를 맞아 하나원큐 앱 이용 손님과 적극가입 개인손

님을 대상으로 '2020 새해맞이 포춘쿠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운수대통 포춘쿠키'와 '복돈만들기 프로젝트'로 실시되는 이번 이벤트는 이달 20일까지 총 1만1320명에게 푸짐한 행운의 경품을 제공한다. /홍민영 기자

신한금융, 또 '3조클럽' 최대 실적 '경사'

신한금융 실적발표

전년비 1.1% ↓ 4분기 순익 5075억
주요 성장동력 이자이익 4.8%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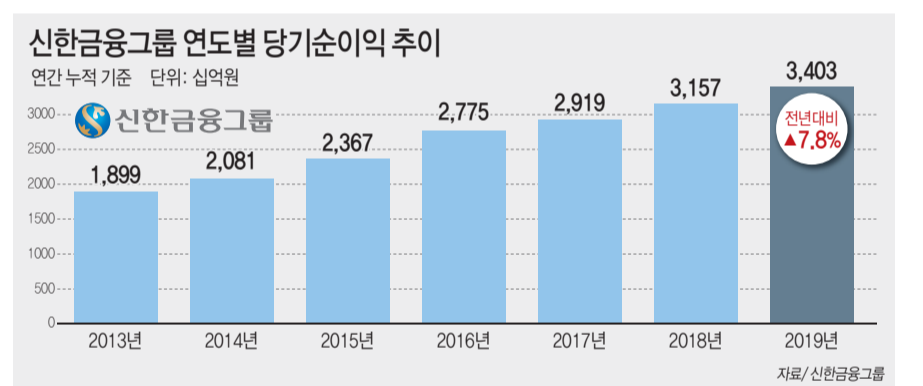
신한금융지주가 2년 연속 순이익 '3조 클럽'을 기록한 것은 물론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신한금융은 5일 실적발표를 통해 지난해 순이익이 3조4035억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이후 6년 연속 증가세다.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507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지만 일회성 비용을 감안하면 경사이익은 여전히 견고한 수준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은행부문에서는 시장금리 영향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하락 기조에도 자산 성장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했으며, 비은행 부문 역시 비이자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으로 그룹 실적 개선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특히 신한은행의 자산 성장이 4분기 연속으로 이뤄지며 그룹의 주요 성장 동력인 이자 이익이 전년 대비 4.8% 성장했다"며 "그룹의 본원적



이익 기반 성장과 더불어 비이자 부문에서도 원 신한(One Shinhan) 협업의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및 투자금융(I B)시장을 중심으로 차별적인 성과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글로벌 부문 당기순이익은 3979억원으로 전년 대비 23.3% 증가했다. 글로벌투자금융(GIB) 사업부문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2% 증가한 679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3년간의 아세안 지역 글로벌 성장을 바탕으로 지역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화 전략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채널, 그룹사 간 연계 영업을 확대하는 등 스마트한 글로벌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한銀, 수출 中企에 긴급 금융지원

입금지연이자 면제, 부도 유예 등

신한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정부의 춘절 연휴 연장, 중국 현지 수입 기업의 대금결제 및 은행 업무 차질 등으로 인한 국내 수출 기

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일 ▲신규대출 규모 확대 및 기존 대출 상환 유예 ▲영세가맹점 대상 무이자 할부서비스 지원 ▲보험료 및 보험계약 대출이자납입 유예 등의 지원 방안을 포함 16개 그룹사가 참여하는 원신한(One Shinhan)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매입외환입금

지연 시 발생하는 이자의 가산금리(1.5%)를 1개월간 면제해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중국 우한 소재 수입기업의 대금결제 지연 및 중국 현지 은행업무 중단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결제 지연이 확인되는 경우 수출환어음의 부도 처리 예정일로부터 1개월 간 부도를 유예한다.

또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신속대응반을 설치해 중국 무역 결제 현황 등 수출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기업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안상미 기자